

간투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물론 유료도로법, 주차장법, 관광진흥법 등 개별법에 의해 민자사업이 추진된 경우가 있고, 지역균형개발법에 의한 각종 개발사업과 광역권개발계획에 의한 광역개발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등에서 독립적 개별적으로 민간자본의 참여가 이루어졌으나, 그 실적이 미미하고 성공사례도 많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94년 8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제정하고 '95년 신공항고속도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정부의 의욕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자유치실적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 설상가상으로 '97년 말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금융위기를 맞게 되어 민간투자사업은 거의 개점폐업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지난 '95년부터 '98년까지 중앙정부 관리사업으로서 정부가 민자유치기본계획을 통해 고시한 민자유치 대상사업은 총 45개 사업이었으며, 사업비 규모도 고시액 기준으로 37조 8천억 원에 달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사업추진은 매우 더딘 편이다. 특히, IMF 금융위기 이후 재원조달 여건이 나빠지고, 기업들의 투자

의욕이 악화되면서 착공에 들어간 신공항고속도로사업과 광주 제2순환고속도로 1구간 사업이외에는 2년 이상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에 머물렀으며, 이후 제도개선과 금융시장 안정에 힘입어 실시협약 변경을 위한 협상을 재개하여 완료하였거나 협상을 진행 중에 있는 등 사업추진이 가속화되고 있는 중이다.

2) 중앙정부 관리사업 현황

정부가 고시한 총 45개 사업 중 30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대상사업으로 지정되었으나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되지 않은 20개 사업 중 의정부 경전철사업 등 5개 사업을 제외한 15개 사업(대전-당진 고속도로사업 등)이 재지정되지 않아 대상사업에서 제외되었다. 추진 중인 30개 사업들도 각 사업마다 사업추진 정도가 다르다.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된 이후 사업계획이 접수되지 않은 사업 중 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재고시하였고, 이 중 부산-김해경전철사업과 서울-하남경전철사업 등 2개 사업은 지난 2000년 8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어 협상을 추진 중에 있다. 시행령 개정 당시 사